

술이 센달



pk2025. 4.17.

술이 센 달

김 태 회

달은 한 달에 꼭 한 번
공릉강 주지(酒池)에 내려와
밤새도록 술을 퍼 마신다

태백은 달이 술이 세다는 소문에
그와 술내기를 했다지
월백(月白)은 밤새 어우러져.....

주지의 은백색 술이
얼추 바닥을 드러내고
새벽녘 닭이 화를 치며
목청을 냅다 늘일 때

달은 태백을 못에 고이 잠재우고
소리 소문 없이 승천했다는구먼!

달은 한 달에 꼭 한 번

공릉강 주지(酒池)에 내려와 밤새도록 술을 퍼 마신다

태백은 달이 술이 세다는 소문에

그와 술내기를 했다지

월백(月白)은 밤새 어우러져.....

주지의 은백색 술이 얼추 바닥을 드러내고

새벽녘 닭이 화를 치며 목청을 냅다 늘일 때

달은 태백을 못에 고이 잠재우고

소리 소문 없이 승천했다는구먼!

🕒Revision #1
★Created 17 April 2025 04:26:06 by pajuwiki
✎Updated 18 April 2025 04:36:40 by pajuwiki